

◇원효종 제10대 종정에 재추대돼 18일 추대식을 가진 법흥스님.

"도 높으면 마음 낮추고 명예 높으면 이름 낮춰야"

"스님드 스스로 부족하다거나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철저한 자기 관리로 유명한 분이기에 짐짓 당돌한 질문을 드렸다.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잠시의 틈도 없이 돌아온다.

"나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야. 허허허.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모두 여의어야 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아직도 나라는 상, 즉 아상을 버리지 믓하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지. 네가지 상을 모두 떠나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떠난 게 없으니 그게 단점이야. 단점 중에서도 아주 큰 단점이지. 그러면 네가지 상을 어떻게 하면 떠날 거냐, 그게 문제야. 부처님 말씀 가운데 그 사상(四相)도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했으니 그 상 가운데 있어도 상에 취하지 말아야 하겠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취하지 말고 도가 높더라도 마음을 낮추고 명예가 높더라도 이름을 낮추고 하심하면서 모든 불자를 이끌어 주어야 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잘 안되고 있어요."

오직 자신의 행동이 부처님 법에 맞는지를 살펴가는 스님의 행동 준거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다. 또한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원효종 내분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남의 잘못을 보기 이전에 오직 자신의 행동이 법에 맞는지를 살피라' 했던 부처님 말씀을 떠오르게 했다.

"종단을 이끌려면 권속들을 잘 두어야 하는데 권속을 잘 두고 못 두고는 자기의 법력 가운데 있고, 자기의 수행 가운데 있는 것이니 분란이 일어난 것은 내 수행과 정진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부지런히 정진해 나가면 그런 분란들도 귀의처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무더웠던 올 여름 보문사에서 회향한 오후 불식 100일 묵언기도와 고대도에서의 일주일 관음기도 모두가 스스로의 정진 부족을 경책하는 것이었다. 젊은 제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듯 기도 100일째가 되는 날, 오랫동안 단청 불사를 못해 애를 태우던 아산 보문사의 대웅전, 관음전, 누각 등의 단청 불사가 회향되었다고 한다. 보문사를 지으신 석주스님(철보사 조실)은 종단의 원로스님 중에서도 가깝게 마음을 나누며 지내는 사이라 단청불사 회향의 기쁨이 더욱 각별했다.

"나이도 많고 승려생활도 어려서부터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모든 게 순간처럼 지나가 버렸어. 부처님께서도 인생은 풀끝의 이슬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 더욱 헛되이 보낼 수가 없어. 한 순간이고 한 찰나이기 때문이지. 부처님께서는 네가지 얻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했어요. 인간의 몸 받기 어렵고 사내 대장부 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출가하기 어렵다고 했어. 여기서 출가가 어렵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 깎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참된 출가수행자란 승복만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예요. 부처님이 설하신 근본 뜻을 터득해 중생을 구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스님인 게지.

모두들 한 해가 가고 있으니 여태껏 허송세월만 해 왔구나 하는 기분이 들겠지만 그렇기에 더욱 발심해야 합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불제자들이 다가오는 새 해에는 새로운 발심으로 원력을 세워 본래면목을 찾는 노력을 더욱 열심히 했으면 해요. 이왕 이 세상에 나왔으니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면서 뜻한 바를 이루는 것은 물론이요,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가 있어야지. 후대의 권속들에게도 모범이 되려면 내가 먼저 청정하고 철저해야 해."

법흥스님은 87세 삶이 순간처럼 지나갔다고 했지만 그 편린이나마 자세히 듣고 싶었다. 스님의 젊은 시절은 스님이 들려주는 얘기 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처음 안양의 삼막사로 출가한 이후 호압사로 옮겨 노스님 한분을 모시고 지내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독살이 절이니까 학교 갔다 오면 절구로 보리방아도 찧고 우물에 가서 물도 길어오고 그랬어. 9살에 시작된 절생활이 경허스님께서 득도하셨던 청계사를 거쳐 화장사로, 지장사로 이어져 나중에는 금강산 유점사에서 4년 정도 공부하게 됐지."

대륜스님의 소개로 금강산 유점사 강원으로 가게 된 스님은 그곳에서 사미가 되었다. 5년 만에 사미가 된 것이다. 그때 유점사 선방에는 만공, 효봉, 청담, 고암 스님 등이 공부하고 있었

"부모님도 부처님 잘 공경하는 일 불제자의 근본"

는데 그곳에서 차를 나르고 따르는 다각 소임을 맡았다. 유점사에는 15살부터 18살까지 있었는데 효봉스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다. 효봉스님과 인연이 깊었던 스님은 훗날 해인사에서 5년 정도 스님을 모시고 살았고 송광사에 계실 때에는 방학때마다 찾아뵙곤 했다.

"효봉스님은 언제나 '어묵동정 가운데 이뭐꼬만 잃어버리지 말라' 고 당부하셨어. 3년 동안 토굴 정진을 하고 나오셔서 만공스님께 인가를 받고 입승을 했는데 그 분 정진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늦깎이라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며 한번 앉으면 포행도 잘 하지 않았어요. 근래 수좌로서 그분만큼 철저한 수행납자도 드물어. 그분을 보며 나도 과거의 조사스님처럼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 정진해야겠다는 발심을 하곤 했지."

스님은 효봉스님을 모시고 계속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고 금수사 주지, 원효종 총무원장을 거쳐 현재 종정에 와 있는 것이 전생의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 것이라며 효봉 스님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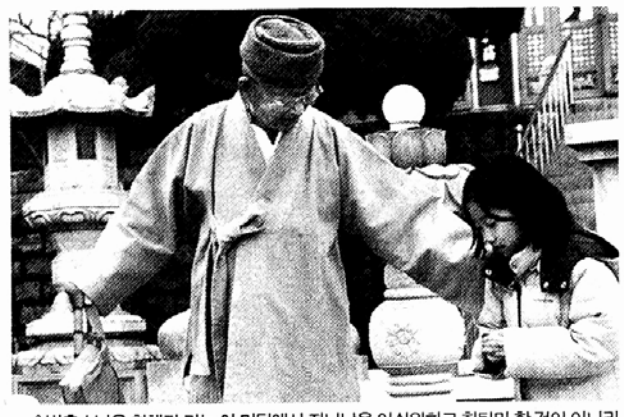
"불문에 들어온 것이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야. 백천만겁난조우라는 말이 있잖아. 만나기 어렵다는 불법을 만나 불문에 들어왔고 출가 본연에 충실해 살자고 맹세를 했으니 그것 이상 행복한 게 어딨겠어?" 스님의 행복론이 이어진다.

"우리절 신도 중에는 노보살이 많아요. 만공스님이나 경봉스님께 화두를 받아 오랫동안 수행해온 이들이어서 내가 오히려 배워야 될 정도로 수행이 깊지. 내가 공부를 물으면 '묻는 스님은 어떤 화두를 갖고 나한테 묻습니까?' 하거든. '그 답변을 듣고자 해서 내가 묻습니다' 하면 '스님이나 내가 돌이 아닙니다. 몸은 다르고 생각하는 이념은 다를지언정 부처님의 혜명은 스님이 가진 것이나 내가 가진 것이 같지 않습니까? 본래 물을 것도 없고 답할 것도 없습니다' 하거든. 이렇게 더불어 공부하며 지내는 것이 승가의 생활이지. 어때? 이만하면 행복하지? 하하하!"

불법을 통한 생활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님은 일반 신도들에게 신심을 가지고 법문을 많이 들을 것과 실천수행 할 것을 늘 강조한다.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관세음보살 화두를 잡아야 해. 부처님이 따로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미타불이고 어머니가 관세음보살이라 생각하세요. 항상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관세음보살로 모시면 바로 그 어머니가 가피를 주거든. 꼭 금수사에 온다고 해서 정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금수사에 와서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가피를 받는 게 아니야. 집에서도 항상 어머니를, 아내를 관세음보살이다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이 불제자의 근본 정신이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새 해에는 부처님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래요."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법흥스님은 한해가 가는 이 마당에서 지난날을 아쉬워하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발심하고 새롭게 원력을 세워 본래면목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하자고 강조하신다.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기성스님

승속을 막론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참 힘들다. 아름답고 즐거운 일들이 넘쳐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노병사를 지닌 그 자체만으로도 점점 힘들어진다. 물론 지혜로운 이는 고(苦)로 가득찬 삶을 슬기롭게 이겨나간다. 그 슬기로운 삶은 혼자 힘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 곁에 늘 도반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도반이란 세속에서 말하는 친구의 의미를 넘어선다. 수행의 길을 함께 가는 길벗이면서, 때로는 선지식 역할까지 해야 하는 존재이다.

지난 여름, 장마가 처음 시작될 무렵 삼천포에 홀로 사는 내 도반이 수재를 만나 큰 피해를 봤다. 산중에 혼자 살다 그러한 재난을 만나면 황당하기 짝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더구나 수재를 겪게 되면 물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밀려든 토사와 소중한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가 되어버려, 그것을 치우는 일만도 엄청나 아예 기가 질려버린다. 나는 수재 소식을 들었지만 벌려놓은 일 때문에 금방 내려가 보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었다. 다행히 강원도에 사는 도반과 삼천포 근처의 도반들이 모여 복구를 도와주었는데 그만, 그 날 내 도반은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다. 오랫동안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고

'의리의 돌쇠' 같은 삶
대중생활의 버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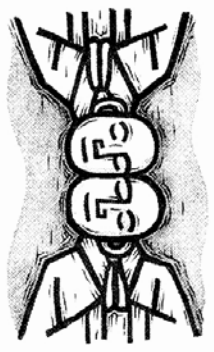
남은 수해복구를 후배인 기성(起性) 스님이 도맡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성스님. 내 기억 속에는 자그마한 체구에 당당함이 넘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할 뿐더러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때엔 어김없이 나타나 힘이 되어주는 '의리파' 다. 게다가 '고집' 이라 부르는 아주 대단하고 강한 의지력이 있어, 칭찬이나 비난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와도 절대 동요하지 않는, 빛나는 현명함을 지닌 스님이다. 수좌로 제방을 누비고 다니더니 진주 명석면 대덕암에 걸망을 내려놓았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 근처에 아는 스님들이 많이 살고 있어 든든한 마음이 들던 차에 삼천포에서 수재를 당한 스님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 그 힘든 일들을 마다 않고 했다는 것이다. 병원에 입원한 스님 보살피랴, 수재가 난 절을 청소하랴 동분서주하면서 애쓰는 모습이 보지 않아도 눈에 선했다.

병원으로 찾아간 내게 도반스님은 기성스님이 관세음보살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수해라는 재해는 만났지만 고마운 스님을 만난 것은 새로운 기쁨이라며 즐거워했다.

그 험난한 여름이 지나가고 초겨울이 왔을 때 어느 도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다. 마침 발인이 다음날 아침이라 나는 벽제화장터로 갔다. 거기서 기성스님을 보게 됐다. 15년만이었다. 우리는 그곳이 화장터인 것도 아랑곳 없이 박장대소하며 반가워 했다. 예전의 청순함(?)은 사라지고 조금은 나이든 모양새를 풍기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기성스님, 몸이 좀 불긴 했어도 여전히 그대로네! 그나 저나 여름에 애썼지요? 병원 쫓아다니느라고 고생했겠어요." "하하! 고생은 무슨 고생. 함께 사는 거지요, 뭐.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다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본래 '의리의 돌쇠' 잖아~. 우하하!"

'의리의 돌쇠' 그야말로 딱 어울리는 표현인데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대중에서 함께 살며 수행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나 홀로 토굴에 정착하게 되면, 수행과 운신의 폭도 함께 좁아져서 생각이 단조롭고 이기적으로 변하기 쉽다. 하지만 대중속에서는 늘 묵묵히 수행하며 타인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스님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런 삶이 대중을 화합하게 하고 대중생활의 존립에 버팀목이 되어준다. 두 무더기의 갈대단처럼, 서로 의지하고 있을 때만 서 있



을 수 있고 만일 하나를 치워 버리면 다른 갈대단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 내가 있음으로 네가 존재하며 네가 있음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기의 도리를 살펴 잘 안다면 우리가 만난 모든 인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날 기성스님은 그 많은 도반들을 뒤로 하고 상주인 스님과 함께 유골함을 모시고 비행기를 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상대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부르면 곧바로 달려가고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것도 무상한지라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처음의 마음에서 벗어나 심드렁해지거나 무덤덤하게들 살아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기성 스님은 언제나 한결 같다.

부처님께서는 〈인과경〉에서 말씀하셨다. "벗 사이에도 세가지 긴요한 일이 있으니, 첫째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며, 둘째는 좋은 일은 마음깊이 함께 기뻐하고, 셋째는 불행할 때 서로 버리지 않음이라." 기성스님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도반이다.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도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 반야사 주지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제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낳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저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북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귀 대창 불교 건축
◦사찰 대웅전 건축 전문 업체
◦고건축 시공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한옥(전통한식)
◦황토방 시공
※ 불사 하실 스님 상담 환영
귀 대창 목재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판매 종류규격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20자, 24자] 1자 ~ 1자 8치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1자 ~ 2자까지
◦기둥 ◦도리 ◦대들보 ◦일주문 기둥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요.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전화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제1공장 054)781-4989 FAX 054)781-5989
H·P 019)327-0374
이종봉 합장

찰나의 깨침
◉ 중국의 백림사(하북성 조현)와 보봉사(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우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 관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전생의 업을 스스로 소멸, 확인하며 집착과 번민 그리고 갈등과 두려움의 얽매임으로부터 온전히 벗어 날 수 있습니다.
◉ 매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깨침의 숲을 거니는 기쁨(환희)을 몸소 경험해 보십시오. 절대적인 평온과 자유를 얻고 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실현 합니다.
부족함없이 사는 지혜를 자녀에게도 가장 값진 유산으로 남겨 주십시요
수련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참마음 수련
총心田 대광사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땀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